

◎ 사순 제 4주일강론

사람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밖의 사물을 관찰하거나, 내 몸 이외의 다른 사물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눈은 두 개가 있어야 흔히 정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한쪽만 있으면,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사물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탓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는 세상에는 두 눈을 가지고 같은 사물을 봐도, 뒤돌아서면 서로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눈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물이 다른 것이 되든지, 아니면 눈 이외의 다른 요소가 개입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어딘가에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것,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눈으로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잘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몇 년간을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경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도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가 봅니다. 이런 질문은 당시 사회에서 소경에 대해서 바라보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설하십니다.

어릴 때에 저희 집은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다가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을 본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때에는 아무리 뛰어도 발걸음이 도대체 빨리 떨어지지 않기도 했고, 없는 끈지가 빠지라고 열심히 뛰기도 했지만, 가끔씩은 짧은 기도를 무작정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날 용기를 내서 같은 장소에 가보면, 귀신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제 키 세·네[3 또는 4] 배 되는

나무에 허연 비닐이 걸려 팔럭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만들었으니, 눈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갖는 마음, 정신의 과정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훨씬 훗날의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답을 하십니다. 몇 마디의 말씀과 눈을 씻은 후에 그의 눈이 정상인처럼 보게 되었다는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단한 이 행동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항의와 오해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예수를 향한 조직적인 반발의 또 한가지 원인이 됩니다. 세상일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내가 세운 기준에 꼭 맞아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그대로 놔두면 왜 잘못된 것인지 가끔씩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사무엘도 눈으로 볼 수 있었기에 사울의 후계자를 새롭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다고 하나님께 꾸중듣기도 합니다. 인간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무조건 비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눈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본다고 자랑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말라.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눈을 심어주신 분이 인간에 대해서 내리시는 선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에만 모든 확실성을 두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감을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을 인간의 자신감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거기에 담긴 뜻을 알아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마음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心眼: 사물을 살펴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의 작용도 감정이 개입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행동했다고

했을 때, 그 때에 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일에 감정의 개입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오로는 마음의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강조합니다. '선과 정의와 진실을 열매맺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반대되는 잘못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도록 잘못을 깨우쳐 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으로 그 힘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눈으로 세상의 사물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남기시는 말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참된 빛을 이웃들이 더 널리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소리치는 것으로서 신앙인들이 할 일은 끝나지 않나, 우리의 미래에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더 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기만 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빛으로 볼 수 있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는 예수님의 또 다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
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내리실 심판의 말씀은 이것
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
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
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눈으
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같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므
로, 소경에게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던 예수
님께 우리도 어둠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
도를 하시겠습니까?

-서울교구 Good News-

◎공소일반공지 ◎

- ▶ 고해성사 : 미사 10분 전과 미사 직후
- ▶ 성가대원 수시모집 : 순회의 성가대장에게
-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 바느질대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 울프레아 : 매월 첫주 일

사 순 기 도

사랑의 창조주여 들어주소서
 사순절 재의시기 돌아왔기에
 우리맘 눈물흘려 기도하오니
 애절한 우리기도 들어주소서
 살살이 우리마음 살피시는주
 마음의 나약함을 익히하시니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들에게
 사죄함 크신은총 내려주소서
 저지른 죄악들이 많고크오나
 신뢰로 비옵나니 용서하소서
 영원히 주님이름 찬미하리니
 나약한 우리마음 고쳐주소서
 제계를 충실하게 지킴으로써
 우리의 육신욕망 눌러이기고
 죄악에 빠지는일 아예없도록
 마음도 절제토록 도와주소서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시기에
 통회의 행위로써 속죄를하고
 부활을 갈망하며 준비한후에
 마땅한 큰기쁨을 얻게하소서
 복되고 복되옵신 삼위일체여
 유일한 주님이여 굽어보시어
 정성껏 바치옵는 우리재계가
 풍성한 열매맺게 도와주소서.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축하드립니다

이달에 영명 축일을 맞으신 교우입니다.
부철은 베드로(12일) / 박민선 세라피나 (12일)/
노정은 마틸다(14일)/ 이수지 루도비까 (15일)/
윤명원 요셉(17일)/ 박경은 요셉피나 (19일)/
김현태 요셉 (19일)/ 부승민 요셉(19일)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빕니다.

◎ 3월 바뇌기도회 안내

▶3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윤명원 요셉 형제집

◎ 3월 울뜨레야 모임 안내

▶오늘 미사후 제의실에서 있습니다.

◎ 3월 구역모임 안내

- ▶1구역: 15일(토) 6pm 박재영 형제집
- ▶3구역: 8일(토) 5pm 김흥식 형제집
- ▶4구역: 21일(금) 7pm 이주현 형제집
- ▶5구역: 29일(토) 6pm 고영호 형제집
- ▶6구역: 15일(토) 7pm 장철원 형제집

◎ 사순 시기 동안 매주일 4시에 십자가의 길이란 구역별로 한번 씩 돌아가며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주는 5구역입니다.

◎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었습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 견진성사 신청

3월 9일 본당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아직 견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현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 친선볼링클럽 안내

- ▶기간: 12월 3일~2008년 3월말 까지
-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Brunswick Bowling Centre (전년과 동일)
- ▶문의: 윤명원 행사부장

◎ 매일 미사책 추가 접수

▶신청 ; 박 재영 선교부장 (B)519-578-8690

◎ 주간 전례

▶3 월 4일(화) 저녁 8시, 사순 제 4주간 화요일

◎ 견진성사 신청

⇨견진교리 및 신자 재교육

3월6일(목) 저녁 8시 이금재 신부님(성령)
3월7일(금) 저녁 8시 전 레오나르도 수녀님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변화)

◎견진 신청자 예절 연습

3월 8일(토) 저녁 8시 성전
대부모님과 함께 참여하여 주십시오.

◎ 부활 판공성사 안내

5일 한맘, 11일 버팔로, 12일 예수 성심,
13일 해밀턴, 14일 런던

◎부활 생활성가 경연대회

일시 : 3월 23일 부활 본 날 미사 후
대상 : 각 구역 및 공소
방법 : 지정곡 한국과 자유곡 한국
지정곡 : 엠마우스 OR 살아계신 주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신청자 수가 부족하여 아쉽게 취소되었습니다.

◎성물방 책,CD, 성물 할인 판매(3월 한 달)

부활을 맞이하여 성물방에서 책과 성물을 할인 판매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책:30%, 성서,성물: 10%, CD:50%

2008-09

2008. 3. 2.

사순 제 4주일미사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5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후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1시30분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미 사 전례

해 설 | 박인선 차주 해설 정경래

화 담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취울 것 없어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21) 한많은 슬픔에
봉 헌 (221) 받아주소서
성 체 (496)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되 장 (280) 성요셉 찬양하세

	독	서	
3 월 2일	고영호		고기숙
3 월 9일	오세중		오미경
3 월 16일	홍차근		홍경숙

	봉	헌	
3 월 2일	신상우		신계연
3 월 9일	학생회		학생회
3 월 16일	오세중		오미경

	복	사	
3 월 2일	지홍		규환
3 월 9일	수빈		한힘
3 월 16일	원영		지현

	2008년 2월 24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827.00
성전건립:	\$	20.00

Total:	\$	847.00
--------	----	--------